

# 귀중한 관찰의 감동

김병모

한양대 박물관장

세상에는 좋은 책이 너무도 많다. 소년시절에 읽어본 《삼국지》《수호지》에서부터 《플루타크영웅전》까지 많은 책이 내게 감동을 주었다. 사춘기와 청년시절에는 다윈의 갈라파고스섬의 여행담이나 파브르의 곤충기 같은 이야기가 흥미단계로 넘어 한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게 하였다. 연구자로서 지금의 나는 아무래도 전공계통의 책을 많이 보게 되지만 그중에서도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이어드의 니네베 발굴기라든지, 디오헤이아달의 콘타키항해를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

양서들의 특징은 경험이나 관찰을 진솔하게 기록한 공통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회랍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역사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는 공통점이 많다. 동서고금의 고전이나 양서를 남긴 저자들은 독특한 인생경험이나 남다른 관찰력을 지닌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저서를 남길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남다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좋은 글을 남길 수 있는가? 보통사람은 좋은 글을 남길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마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이다. 우선 남자와 여자는 경험이 다르다. 도시출신과 농어촌출신도 다른 경험을 하며 성장한다. 그런 경험의 남다른 것의 으뜸이다. 군대생활이나 전쟁경험도 매우 중요한 것이며 국내의 정치, 사회적 사건이나 세계적 정치 역학변동도 우리시대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다. 대형사고나 서울 올림픽 같은 세계적 축제도 우리시대 한국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남다른 것이다. 이런 경험들의 느낌이 다른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된다면 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고교시절부터 써오던 일기쓰기를 대학교수가 되면서 끝냈다. 새로운 방법으로 나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단문(單文)의 크로니클(chronicle)이다.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수첩에 약속시간, 장소, 만날 사람, 강연제목 등을 기록한다. 때로는 구매한 책이름이나 물건의 값도 기록한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때는 한줄짜리 기록도 한다. 해외여행을 할 때 그 수첩은 위력을 발휘한다. 출발전에 여행예정지의 예약된 숙소나 비행기 기차시간을 적어가지고 떠난다. 만날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적어둔다. 여러 장의 일회용 메모지를 쓰듯이 수첩에 적어둔다. 방문한 나라의 교수나 박물관 관장의 이름 같은 것이 자연히 기록에 남는다. 귀국하는 배나 비행기 위에서 수첩을 꺼내 보고 도착장소와 예정시간을 적는 것으로 기록이 끝난다.

그런 탓인지 장기적으로 여행할 동료들은 내게 문의해 올 경우가 많다. 소련에서 쿠데타 사건이 있던 날이 무슨 요일이었나라든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낙타를 타고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 낙타주인이 사레금을 얼마를 요구했었나, 같은 것을 대답해 줄 수 있었다. 심지어는 히말라야에 사는 셀파족들이 만들어 마시는 토속주의 '원코와' 이름 같은 것은 간단히 기록에 남을 수 있어서 나 자신의 여행기를 출판할 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나는 이 기록수첩을 '배추장수 아주머니의 수첩'이라고 부른다. 싸구려 수첩이니까 한번 살 때 수십 권을 사놓는다. 같은 크기이니까 기록 후에 보관하기도 좋다. 그렇게 기록된 배추장수 수첩이 이제는 이백 권이 넘고 있다.

또다시 8월이다. 광복 오십 년의 여름이다. 요사이에는 새로 출판된 김구선생의 《백범일지(白凡逸志)》를 읽으면서 선생의 애국적 인생을 함께 호흡하고 있다. 특히 선생의 정국시찰 대목을 읽으면서 조선시대, 대한제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시대를 경험한 한 인간의 기록을 전기문학의 가치보다도 민속, 지명에 관한 귀중한 관찰에 감동을 받고 있다.

표지 인터뷰 2 **우리 음악의 뿌리 캐들어간 학문 외길**  
《한국음악사논고》 펴낸 송방송교수

특집/광복50년, 출판50년 4 **은혜 속에서 살아온 이야기** - 조상원  
원로 출판인의 출판 반세기 交遊記

7 **광복 50돌 의미 되새는 기획도서들**

10 **현대사의 격랑 헤쳐온 출판 50년의 발자취**

14 **'아름답고 품위있는 표지'의 어제와 오늘**

16 **출판 반세기를 이끌어온 作故 출판인들 ①**

출판화제 20 **책임감·신뢰감 높이는 '출판실명제' 바람**

21 **여름방학 맞아 눈길끄는 어린이책들**

서점가 동향 22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나선 서점가 이벤트**

기획 시리즈 23 **영화위기의 초보에서 깊이까지** - 정재형  
대중문화 시대를 이끄는 책 ②

원색화보 24 **'현실과 환상' 넘나드는 만화의 세계**  
'95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출품작 이모저모

서평 26 **오출세 《한국서사문학과 통과의례》** - 최운식  
**인병국 《귀신설화연구》** - 김현룡  
27 **표재명 《키에르케고어 연구》** - 강학철  
**한국칸트학회 《칸트와 형이상학》** - 김수배  
28 **채훈 외 《월북작가에 대한 재인식》** - 권영민  
**정병준 《몽양 여운형 평전》** - 심지연  
29 **침머 《인도의 신화와 예술》** - 김용환

이 책 그 사람 30 **《원포인트 건축사진》** 펴낸 임의정씨  
**《사물놀이 이야기》** 펴낸 김현선씨  
31 **《한·일 50년은 청산되었는가》** 펴낸 김용수씨  
**《자연사 기행》** 펴낸 최영선씨

32 **신간안내**

42 **새로 나온 책**

48 **재미있는 책 이야기**

표지사진/김지옥